연령통합적 여가 측면에서 본 자원봉사활동의 연령별 실태 분석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Volunteering Activities in Regards to Age-Integrated Leisure.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김 효 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소 영**

Dep.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Course Kim, HyoSun
Center of Leisure Policy Research
Senior Researcher Yoon, SoYoung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actual conditions of volunteering activities in respect to age-integrated leisu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2010 Korea Leisure Life Surve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015 people who reside in Korean cities, except for Jeju-do. Questionnaires from the 2010 Korea Leisure Life Survey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descriptive analysis, Chi-Square test and ANOVA by SPSS WIN 17.0.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8%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as leisure in the last one year.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 주저자: 김효선 (hyosun620@hotmail.com)
** 교신저자: 윤소영 (soyoung@kcti.re.kr)

academic career, income, and marital statu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volunteer participation.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duration and field of activities according to age. Third, though most of the non-volunteer reasons were 'lack of resources',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based on age. In detail, the reason for 10-50 year-old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as 'lack of time', but the more than 60 year-olds was 'health concern'.

Consequently, this access to the life cycle study shows the ne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생애주기(life cycle),
연령통합적 여가(age-integrated leisure), 자원봉사(volunteer work)

Ⅰ. 서 론

우리의 삶 속에서 여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노동시간 단축, 자유재량시간의 확대 등 개인에게 재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가생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이기영 외, 1992 재인용). 이렇게 여가 생활이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일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보람된 여가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적 특징은 정적인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윤소영, 2008) 사회적, 개인적인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성으로 인해 거래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당사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자기성장을 이루게 되며, 지역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동시에 넓은 시각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한정란·이금룡·김동배·원영희, 2001) 장점을 가진다. 특히,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두려움을 치료하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후생활을 보람 있고,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황관식, 2010)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윤소영(2009)은 노년기의 적극적인 여가형성과 노후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년기부터 생애주기별로 여가에 대한 설계, 계획,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여가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행동이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어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령통합적 여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인 여가의 방안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전문성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여가활동 능력을 함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

사활동이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과거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자원봉사활동이야 말로 중도탈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이다(최일섭, 2008). 그러나 생애주기별로 여가활동은 꾸준하게 똑같은 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생애주기별로 문제점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경제활동 연령층은 일과 여가활동의 불균형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재량 시간이 많은 아동기와 노년기에는 절대적으로 여가 가용시간이 많으나 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여가 생활의 연령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한 여가생활의 연령차별적인 양상을 가져 올 것이고, 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해 질 것이다. 여가생활의 연령별 단절 문제는 생애주기의 변화로 기인하며,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단계별로 단절로 인한 비효율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여가생활을 전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는 연령통합적 여가에 대한 개념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현 정부는 2010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여가 문화 활동 콘텐츠 개발'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연령통합적 여가란 전 생애에 걸쳐 각 시기에 알맞은 여가 과업을 계획하고 여가경력을 개발함으로써, 여가활동을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걸친 여가활동의 개발은 여가활동이 단절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하게 드는 소모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삶의 운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령통합적 여가의 접근은 모든 생애에서 여가를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듯 연령통합적 여가의 개념은 개인의 여가발달 과정과 삶 전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여가생활을 개척하고,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써 생애주기적 접근으로 각 연령별 상황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연령통합적 여가의 개념으로 각 생애주기 단계에서의 과업을 계획하여, 지속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령통합적 여가의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령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통합적 여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2010 국민 여가활동조사를 통해 조사된 여가활동으로 나타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자원봉사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의 특성을 비교하고, 경험자의 연령별 봉사시간, 활동한 자원봉사 분야를 분석하고, 자원봉사 미경험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령별 자원봉사의 장애요인과 지속요인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현황 분석을 통해 각 연령별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 노년기 등 각 세대의 실태에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연령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을 여가생활로서 연령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연구와 구분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연령통합적 여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여가생활의 잠재성을 점검해 보고,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살펴보는데 의의를 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전 연령층에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연구에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 경험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연령별로 자원봉사 참여현황 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연령별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연령통합적 여가와 관련된 이론

1)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통합적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

연령통합적 여가활동 모형을 제안한 윤소영(2009)의 연구에서는 유년기에서 시작하여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속성, 각 생애단계별로 특화되어야 하는 생애별 특성화, 생활로서 여가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가의 생활화'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령차별사회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변화는 여가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전 생애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를 통한 여가활동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령통합적 사회는 교육, 일, 여가를 개인들이 선택하여 생애동안 조정, 배분할 수 있다는 의미와 상이한 생애단계의 다양한 연령계층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정경희, 2004). 또한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 참여, 확장기는 초기여가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유년기와 청년기로서 다양한 여가활동의 체험을 통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2단계 선택, 집중기는 입직, 결혼, 자녀 양육 등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기존의 여가환경의 범위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로 자신만의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시기이다. 3단계 지속, 몰입기는 그 동안의 생애주기 동안에 구축된 여가활동의 경험, 기술, 노하우 등이 개인의 여가경력으로 전문화 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수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와 관계적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각 단계별로 생활환경의 변화, 장애요인, 생애주기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2) 연령통합사회에서의 노화이론

연령통합적 여가의 최종 목적지는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인 여가의 계발을 통해 여가가 인생의 하나의 과업으로서 노년기의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노화이론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란 생애발달과 관련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가장 대표적 이론인 '성공적 노화의 통합 모델'의 Ryff(1989)는 생애주기 발달이론, 개인성장의 임상적 이론, 긍정적 정신건강 이론 등을 통합하여 설명하면서 긍정적 기능과 관련된 6개 차원에 기초한 성공적 노화의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 수용, 타인과 긍정적 관례, 자율성, 환경적 지배, 생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에게서 기대되는 행동 및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노화의 이론들은 분리, 활동, 발달, 지속, 교환 및 낙인 이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Barrie Gunter,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노화이론 중, 연령통합적인 여가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Havighurst와 Lemon(1972)에 의해 제창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기본 주장 하에 노년기에 들어서도 중, 장년기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정년퇴직으로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적 바탕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노인이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존의 생활로부터 분리된다는 분리이론과 상반된 개념으로 노인의 사회활동의 참여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긍정적 상관관계로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황선옥, 2001 재인용). 또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하여 강한 저항의식을 지니므로 노인들 중에는 중년기에 행해졌던 여러 활동 또는 교제 범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종전의 역할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대체활동을 찾아야만 한다. 그 활동이 곧, 노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역할이 줄어들면서 노인들은 더 자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패턴을 가지게 될 것이다(송화숙, 2002). 노년기의 지속적인 활동은 성공적인 노년기의 핵심적인 바탕이 되며 노인들을 소외시키는 사회적인 경향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 자신이 활동적인 생활양식과 역할수행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가생활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젊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생겨 새로운 대체활동을 찾는데 쓰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생활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설명하려는 이론인 활동이론이 노년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역할대체를 통한 계속적인 활동을 강조한다면, 지속이론은 전 생애를 통한 성장발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인성적 특징에 의한 노년기 대처 및 적응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소극적이거나 비활동적이었던 사람은 노년기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항상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이를 지속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을 두고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유형을 지켜나감으로써 자아 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지속이론의 시각에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전 생애 단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더욱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속이론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이나 재정적 문제들, 기타 자원봉사 활동기관의 환경이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변수로 보고 있다. 최근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는 지적이다(임옥빈, 2010). 지속이론과 활동이론을 배경으로 노인의 자원봉사 중단은 어렸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한 방면으로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가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연령별 자원봉사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통계청(1999, 2003, 2006, 2009)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전체인구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표 1>에서와 같이 1999년 13.0%에서 2009년 19.3%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가장 뚜렷한 변화는 15~19세 청소년의 참여율이 1999년 33.8%에서 2009년 79.8%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원인으로는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5.31교육개혁방안'이 제도화 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1학년도 이후,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하여 연간 특별활동에 있어서 68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확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강현·김성경(2000)의 연구에서는 한국 자원봉사자의 과거의 경험이 자원봉사 참여 영향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개인적 경험,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 단체경험 등 과거의 경험을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 경험자들은 개인적 경험에서 이미 과거에 유사한 자원봉사활동을 대부분(85.6%)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8.4%),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7.4%)에서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다. 단체경험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에서의 활동 경험'(59.5%)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생애주기 접근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용안(2010)의 분석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애초에 '자원'봉사가 아닌 봉사학습으로 강제성이 짙은 특별활동 영역으로 실시가 되었으므로 자발적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미연(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활동분야별·활동터전별 활동현황을 분석해 볼 때 일손 돕기(39.9%), 지역사회개발(18.9%), 환경시설보존(16.1%)등에 참여자가 많았다. 또한 참가자들이 봉사활동을 벌인 장소는 공공기관 및 단체(60.7%), 사회복지시설(15.7%),행사장(6.0%)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참여율이 2005년 40.1%에서 2007년 15.7% 로 대폭 감소된 반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경우 2005년 26.5%에서 2007년 60.7%로 대폭 증가된 사실은 자원 봉사자의 봉사대상의

〈표 1〉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연령	전체인구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9	13.0	33.8	7.8	13.2	13.0	10.8	6.7
2003	14.6	52.4	10.3	11.6	14.2	12.2	6.7
2006	14.3	59.5	8.3	10.2	13.9	12.4	6.5
2009	19.3	79.8	13.9	13.6	18.6	15.5	7.0

자료: 통계청, 2010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것과 자원봉사활동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가능 연령대인 25세~64세 사이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다. 박병현과 그의 동료들(1998)의 직장인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에서는 현재 직장인의 19%만이 활동 중이거나 과거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직장인들의 46%정도가 사회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이 직장인 여가의 주요활동으로 자리할 수 있으리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선진국에 비해 참여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참여분야도 다양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6)가 발간한 '2009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연간 1회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는 총 34만 5,064명 가운데 40~50대 25%, 60대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중돈(2010)은 기존의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방향의 설정, 그리고 정부와 노인복지현장에서의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최근 들어 노년학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이자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인 자원봉사활동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임옥빈(2010)은 노인인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15세 이상 인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비교하여 다른 어떤 연령층의 참여율보다 낮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과성으로 끝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40% 정도, 오스트레일리아의 17%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3. 자원봉사활동 지속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대한 관점들을 선행연구들에서는 크게 개인 특성적 관점과 조직 특성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모옥희, 1995; 이윤경, 1998; 홍승혜, 1995; 조휘일, 1991; 김숙경, 2001). 아래 <표 2>와 같이 개인특성의 요인들에는 사회적 배경, 인적자원, 동기 및 태도, 사회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조직특성 요인으로는 물리적, 조직풍토, 조직관리, 조직 내 관계망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숙경(2005)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소득수준, 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적 배경 요인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수행 양상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한다.

소득은 자원봉사활동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그 영향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일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는 소득수준과 자원봉사활동과의 관련성은 소득수준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유계층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은 자원봉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닐 것으로 주장되었다. 경험적 연구들의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반면, 오히려 남성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거나, 성별은 아예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영향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수준은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및 자원봉사활동 수행도, 기여도, 성취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자원봉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연령과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는 연구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이 증대되거나 높을수록 또한 중년기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숙경, 2005 재인용).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뢰하여 실시된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여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자원 이용, 주 40시간 근무제 평가, 여가환경 등 국민여가실태, 여가시장동향, 국내외 여가관련 정책현안 등에 대한 자료 축적 및 추세 분석을 통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조사로 매년 시행된다.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조사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1,500가구의 3,051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 10일간이었다.

연구범위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관련 항목 중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항목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평균 등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 학력, 소득수준을 변수로 선정하여 자원봉사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을 위하여 χ^2검증(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령통합적인 자원봉사활동실태를 알아보고자 자원봉사참여시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령별 분포를 일원배치분석(ANOVA)를 통하여 Duncan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으로 바탕으로 현재 활동 중인 분야를 살펴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령별대로 자원봉사 미참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참여 이유에 대한 항목을 중심으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본 연구 조사의 자료로 쓰인 2010 국민여가생활조사의 피대상자는 총 3051명으로 지난 1

〈표 2〉 자원봉사활동 지속 요인의 배경

개인특성 요인		조직특성 요인	
사회배경 요인	소득수준, 경제적 지위, 성별	물리적 환경 요인	기관의 규모, 역사, 기능, 지명도, 지리적 위치,
인적자본 요인	학력, 건강, 연령	조직 풍토 요인	조직분위기 및 소속감
태도, 동기관련 요인	종교, 자원봉사활동경험	조직 관리 요인	교육, 훈련, 직무관리, 보상관리
사회활동 요인	혼인상태, 가족구성	조직 내 관계망 요인	종사직원, 동료자원봉사자,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

자료: 김숙경, 2005

년간(2009. 7. 1~ 2010. 6. 30) 자원봉사를 경험해 보았다고 대답한 인원은 555명(18%)이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인원은 2496명(8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모옥희, 1995; 이윤경, 1998; 홍승혜, 1995; 조휘일, 1991; 김숙경, 2001; Gidron, 1985; Stevens, 1991; Wilson & Muzic, 1998, Cnaan & Cascio, 1999)들을 바탕으로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요인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사회배경 요인에서는 소득수준, 성별 변수를, 인적자본 요인은 학력, 연령 변수로, 태도, 사회활동 요인으로는 혼인여부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로 자원봉사활동 유무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01이내에서 연령과 자원봉사활동 여부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p<0.001$).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연령별로 자원봉사 경험자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특징으로는 1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10대의 경우 자원봉사를 경험해 보았다고 답한 인원은 155명으로 자원봉사를 경험자 555명 중에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2496명 중에 10대의 비율은 4%로 나타나 10대의 자원봉사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정책적으로 중고생들에게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대의 참여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50대보다 여가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60대 이상의 은퇴기 세대들이 오히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년기 봉사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성별을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 유무와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 성별과 자원봉사활동 유무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p>0.05$).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원봉사 참여자의 성별 차이와 미참여자의 성별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성별과 자원봉사참여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육정도와 자원봉사활동 분석에서는 10대 연령층을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10대 연령층은 주로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거나 대학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력분포 비교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척도를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대학교육 이상을 고등교육이라고 판단하여 '대학교육 미만'과 '대학교육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대학교육 미만'은 무학,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고, '대학교육 이상'은 4년제 미만,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이상에 해당한다. 10대를 제외하여 케이스를 재분류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400명,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2390명으로 집계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도와 자원봉사활동 유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교육정도와 자원봉사활동 유무와의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1이내에서 교육정도와 자원봉사활동 유무 여부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p<0.01$). 미참여자 집단에 비해 참여자 집단일수록 고학력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학력과 자원봉사활동경험은 정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소득 분포와 자원봉사 경험 여부 결과를 살펴보면,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01이내에서 가구소득과 자원봉사활동 유무 여부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p<0.001$).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자 전체가구의 평균값을 구한 뒤, 그 값을 기준으로 소득 분포를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척도 값으로 4.31(약 월평균 430만원)이 나와 편의상 척도 4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분포를 살펴보았다.[1)]

그 결과 경험자 중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이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본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분류	참여자	미참여자	χ^2
		N(%)	N(%)	
연령	10대	155(27.9)	106(4.2)	347.004***
	20대	49(8.8)	262(10.5)	
	30대	79(14.2)	481(19.3)	
	40대	104(18.7)	544(21.8)	
	50대	92(16.6)	416(16.7)	
	60대	50(9.0)	331(13.3)	
	70대 이상	26(4.7)	356(14.3)	
	합계	555(100)	2496(100)	
성별	남	248(44.7)	1179(47.2)	1.187
	여	307(55.3)	1317(52.8)	
	합계	555(100)	2496(100)	
교육정도	대학교육미만	231(57.8)	1561(65.3)	8.532**
	대학교육이상	169(42.3)	829(34.7)	
	합계	400(100)	2390(100)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100만원미만	65(11.7)	472(18.9)	38.904***
	월평균100만원~200만원미만	92(16.6)	522(20.9)	
	월평균200만원~300만원미만	123(22.2)	547(21.9)	
	월평균300만원~400만원미만	102(18.4)	371(14.9)	
	월평균400만원~500만원미만	63(11.4)	265(10.6)	
	월평균500만원~600만원미만	46(8.3)	152(6.1)	
	월평균600만원이상	64(11.5)	167(6.7)	
	합계	555(100)	2496(100)	
혼인상태	미혼	19(5.4)	123(5.8)	18.108***
	배우자있음	290(82.6)	1602(75.3)	
	사별	21(6.0)	299(14.1)	
	이혼	21(6.0)	104(4.9)	
	합계	351(100)	2128(100)	

* p< .05, **p< .01, ***p< .001

1) 월평균가구소득의 척도는 '월평균100만원 미만'이 1, '월평균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2, '월평균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3, '월평균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4, '월평균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5, '월평균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6, '월평균 600만원 이상'이 7로 구성

400만원 미만은 382명(경험자 중 70%),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이상은 173명(경험자 중 30%)으로 나타났고, 미경험자는 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 미만은 1912명(미경험자 중 80%),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이상은 584명(경험자 중 20%)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400만원이상(=척도 '4'이상)의 소득 분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혼인상태와 자원봉사활동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제한하여 30대 이상으로 케이스를 분류하였다.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유의수준 0.001이내에서 혼인상태와 자원봉사활동 여부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p<0.001$). 혼인상태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더 높고, 미참여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참여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2.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현황 분석

1) 참여자의 연령별 참여시간 차이

연령별로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1년 안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봉사시간과 활동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균 봉사시간을 연령별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분석결과 유의수준 0.1% 이내에서 자원봉사참여시간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582$. $p<0.001$).

연령별 자원봉사 평균시간을 분석해 보면, 전체 연령이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평균 시간은 50.32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자원봉사 참여시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는 전체 평균시간 보다 30시간 정도 적은 20.89시간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결과에서는 10대가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흥미로워 보인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전체

〈표 4〉 연령별 자원봉사참여시간 분석

(1년 기준)

연령대	평균시간	N(%)	분산분석 (F값)	Duncan
10대	20.89	155(27.9)	13.582***	A
20대	43.61	49(8.8)		A/B
30대	38.18	79(14.2)		A/B
40대	57.74	104(18.7)		B
50대	60.60	92(16.6)		B
60대	104.66	50(9.0)		C
70대이상	104.65	26(4.7)		C
합계	50.32	555(100)		

*p< .05, **p< .01, ***p< .001

평균시간 보다 2배나 많은 10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은퇴 후에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여가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잠재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년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평균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집단 간에 유사한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연령과 자원봉사 평균참여시간을 Duncan 분석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0대,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 60대와 70대 이상 집단이 유의수준 5%에서 서로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유의미하게 재분류될 수 있었다. 따라서 20대와 30대를, 40대와 50대를, 60대와 70대 이상을 묶어 연령 변수로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의 4개의 연령대 집단 재분류 되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재분류된 집단별로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 60대와 70대 이상 집단이 각각 자원봉사활동 평균참여시간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병대별 자원봉사활동분야 분석

자원봉사 참여자의 연령별 활동분야를 분석한 결과, 활동분야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분야를 8개로 환경보전·안전예방 관련, 문화자원봉사 관련, 국가 및 행사 관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련,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농촌 일손 돕기 관련, 일반인을 위한 봉사, 종교 관련, 공공기관 관련, 기타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환경보전·안전예방에 관련된 활동으로는 마을청소, 방범활동, 교통지도 등을 포함한다. 문화자원봉사 관련된 활동으로는 도슨트, 문화 해설사, 숲 해설사, 공연 등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된 활동으로는 스포츠행사, 지역축제 등에서 안내, 도우미, 통역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관련된 활동으로는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야학교사, 노숙인 무료급식, 독거노인 돌보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분야로 재분류하였다.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하여서는 무료상담, 아이돌보기, 일반인을 대상(교인)으로 한 종교단체

〈표 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분야

단위: 명(연령대 중%)

	10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환경보전·안전예방 관련	33(18)	25(16)	26(11)	23(25)	107(16)
문화자원봉사 관련	2(1)	3(2)	4(2)	2(2)	11(2)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관련	89(48)	85(55)	134(59)	30(32)	338(51)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농촌 일손 돕기 관련	6(3)	16(10)	15(7)	8(9)	45(7)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12(7)	13(8)	15(7)	13(14)	53(8)
종교관련	1(0.5)	3(2)	7(3)	7(8)	18(3)
공공기관 일손 돕기 관련	17(9)	1(1)	0(0)	0(0)	18(3)
기타	1(0.5)	1(0.6)	3(1)	2(2)	7(1)
전체	184(100)	154(100)	228(100)	93(100)	659(100)

의 무료급식봉사 등을 포함한다. 종교 관련된 활동으로는 종교단체에서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관련된 활동으로는 교내봉사, 시청, 도서관, 소방서, 동사무소 등에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분석된 내용은 <표 5>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문화자원봉사 관련된 활동에 가장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Duncan분석을 통해 재분류된 연령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10대의 경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련 활동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전·안전예방 관련 활동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특징적으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공공기관 일손 돕기 관련 봉사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련 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60대 이상의 경우가 가장 참여가 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원봉사참여 분야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련 활동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가활동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연령별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미참여 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를 교차분석 후에 아래 <표 6>에서와 같이 일

〈표 6〉 연령별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단위: 명(연령대 중%)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χ^2
시간부족	62 (58.5)	144 (55.0)	268 (55.7)	292 (53.7)	203 (48.8)	107 (32.3)	30 (8.4)	
경제적 여유부족	12 (11.3)	46 (17.6)	78 (16.2)	117 (21.5)	102 (24.5)	70 (21.1)	57 (16.0)	
정보부족	15 (14.2)	36 (13.7)	74 (15.4)	65 (11.9)	41 (9.9)	23 (6.9)	9 (2.5)	
건강문제	1 (0.9)	2 (0.8)	12 (2.5)	20 (3.7)	43 (10.3)	114 (34.4)	227 (63.8)	
봉사프로그램 자체문제	12 (11.3)	23 (8.8)	32 (6.7)	34 (6.3)	19 (4.6)	9 (2.7)	6 (1.7)	877.617***
가족관계문제	0 (0.0)	0 (0.0)	5 (1.0)	2 (0.4)	1 (0.2)	1 (0.3)	0 (0.0)	
개인문제	3 (2.8)	10 (3.8)	12 (2.5)	13 (2.4)	6 (1.4)	7 (2.1)	27 (7.6)	
기타	1 (0.9)	1 (0.4)	0 (0.0)	1 (0.2)	1 (0.2)	0 (0.0)	0 (0.0)	
전체	106 (100)	262 (100)	481 (100)	544 (100)	416 (100)	331 (100)	356 (100)	

*p< .05, **p< .01, ***p< .001

원 χ^2검증을 통해 집단들 간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χ^2값은 877.617이고, 자유도는 24이며, 유의수준은 0.1%이내에서 연령별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0대부터 50대까지는 시간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대는 58.5%를 20대는 55.0%를, 30대는 55.7%를, 40대는 53.7%를, 50대는 48.8%가 압도적인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의 양상은 학업이나 경제활동에 치중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0대 이상은 건강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60대의 경우 34.4%, 70대 이상의 경우는 63.8%가 건강문제가 장애요인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40대는 21.5%, 50대는 24.5%, 60대는 21.1%가 자원문제 중에서 경제적 여유 부족이라고 답하여 자원문제 내에서도 연령별로 자원봉사활동의 장애요인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문제로 분류된 관심부족 및 필요성 인식부족, 의지부족은 전 연령대에 걸쳐 높지 않게 나타나 모든 연령층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살아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어 향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잠재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0 국민여가생활조사를 활용하여 연령별 자원봉사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분야와 참여시간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요인과 자원봉사 미참여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령통합적인 여가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령별로 자원봉사 참여는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유년기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전개양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Gidron, 1985). 본 연구결과에서의 10대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여가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0대의 높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은 상당부분 학업 또는 입시와 연관된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연령통합적으로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10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쉽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족 또는 친구들 등 지인들과 함께 동아리 형태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자발적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이 연령통합 여가적인 의미로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기 이후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30대 연령층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노동가능인구로서 이 연령층의 공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 연령층 역시 현실적으로 여가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직장 생활에

서 '여가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직장인들에게도 그 필요성과 장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지속적인 여가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 시간과 활동 분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참여 평균시간은 60대가 가장 길었고, 70대 이상, 50대, 40대,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 평균시간이 길어졌다. 또한 평균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Ducan 분석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가, 6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이 비슷한 참여시간 양상을 보여 재분류할 수 있었다.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분야에서는 복지시설, 병원, 야학, 무료급식, 독거노인 돌보기 등의 활동이 전체의 51%로 편중되어 있었고, 각 연령별로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호회의 형식을 띤 모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보육 공동체를 하거나, 재능 나누기 운동, 구호활동 등 더욱 다양한 활동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同窓會>라는 저널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동창회들은 봉사활동이나 국제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자신의 학교 이름으로 학교를 지어주고, 구호활동을 한다. 이렇듯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접근성이 쉬워질 것이고,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요인 분석에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10대에서 50의 연령층에서는 50%정도가 시간이 부족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은퇴 이후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는 건강문제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60대의 경우에는 32.3%가 시간부족도 큰 문제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 이후 실제로 절대적 여가시간이 증가되는데 반하는 모순되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 노년층의 여가인식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무료급식과 같이 단순하고 주변적인 종류가 많아 노년층의 흥미를 잃게 하는 것도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인 노인여가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노인의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능나눔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지방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땡땡땡 실버학교'는 노인에게 다양한 전통문화를 교육한 후에 교육받은 노인을 생산적인 인력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노인여가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Stebbins(1996)는 자원봉사활동이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진지한 여가는 "고난이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며 경력을 쌓는데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는 아마추어, 취미가,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여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일상적 여가는 "즉각적이며 내적으로 보상되는 비교적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즐거운 활동으로써, 참여하는 데 있어 거의 특별한 훈련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세혁 외, 2010 재인용). 이러한 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어떤 여가활

동보다도 일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가지고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순수한 여가(true leisure)를 경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원봉사활동이 연령통합적인 여가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생애주기에 맞는 과업을 달성하면서, 전문적인 여가로서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별로 나타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연령통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연령통합적인 여가로서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방안이 되도록 하는 것에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10 국민여가생활조사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령통합적인 여가 실태를 위한 조사 목적, 대상자 선정, 관련 내용 질문 구성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이 연령통합적 여가로서 나아가기 위해 연령별 실태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서 생애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향후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후, 각 연령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 못한 자원봉사에 대한 자원봉사 경험 여부와 지속기간, 첫 자원봉사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노인여가에 대해서도 더욱 폭 넓은 이론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1)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2) 권중돈(2008). 전문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3)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4) 김미연(2008).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숙경(2001).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숙경(2005). 자원봉사자 개인 및 조직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의 지속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6(-), 1-22.
7) 나원규(2005). 기업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류기형(2008). 자원봉사자 직무특성이 활동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정책, 35(-), 221-243.
9) 모옥희(199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중단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문화체육관광부(2009). 여가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실태조사.
11) 박병현·이경희·최선미(1998).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8(-), 281-308.
12) 박세혁·이윤정·서희정·최진호(2010). 자원봉사자의 관여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접근.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135-144.
13) 송화숙(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윤소영(2008).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 윤소영(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

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 이강현·김성경(2000). 한국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74-689.
17) 이금룡·강은경·박준기·구재관·조봉실·이기백·이권일·박상욱(2009). 노인자원봉사실천론. 서울: 학지사.
18) 이기영·장윤희(1992).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45-161.
19) 이용안(201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양시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이윤경(1998). 가정봉사원의 활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임옥빈(2010). 노인의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7(-), 11-26.
23) 조휘일(1991). 한국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 최일섭(2008). 한국 사회복지학 실천의 동향과 과제. 한국비영리학회지, 6(3), 185-209.
25) 통계청(2010). 사회조사 보고서.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6). 200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7) 한정란·이금룡·김동배·원영희(2001). 노인자원봉사의 노년교육학적 의미. 한국성인교육학회지, 3(3), 45-67.
28)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홍승혜(1995). 재가복지자원봉사자의 만족과 지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황관식(201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황선옥(2001).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Barrie Gunter(2010). Understanding the Older Consumer: The Grey Market. Taylor & Francis Group.
33) Cnaan R. A. and Cascio. T. A.(1999). Performance and Commitment: Issue in Management of Volunteer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4(3-4), 17-33.
34) Gidron, B.(1985). Predictors of Retention and Turnover Among Service Volunteer Worker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8(1), 1-16.
35) Stevens. E. S.(1991). Toward Satisfaction and Retention of Senior Volunte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6(3), 33-41.
36) Wilson. J. and Muzic. M.(1998).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to Volunteering. Social Science Quarterly, 79(4), 128-150.

■ 투 고 일 : 2011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4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5월 25일